

足・龍角) 右足(四爪)은 높이 들어如意珠를 받들고 있는데如意珠에는相通하는 五個의 구멍이 뚫려 있다. 다시 兩足部에서 火炎形이 솟아나와 甬筒을 슬쩍잡고 위로 올라 있으며 끝이 약간씩 벌어졌다. 甬筒의 上緣에는 五顆의 珠形이 달려 있으며 筒身에는 二條의 陽鑄帶緣이 三列橫으로 둘러있고 內空이며 鍾身과 貫通되어 있다. 鍾身은 위가 평편하고 比較的 扁平하게 생겼다. 여기 上帶는 肩部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連珠文과 이것과 下接해 있는 複連珠文(연단內에 二個의 連珠文이 있는 帶로 되어 있고 下帶는 連珠文이 있고 그 밑에는 上帶와 달리 唐草文帶가 있어 이들이 下帶를 이루고 있다. 乳廓은 上帶와 接해서 四個處에 있고 周圍는 唐草文으로 둘러있고 안에 九乳가 있다. 飛天은 무릎을 꿇고 合掌한 듯 하여 上院寺의 銅鍾飛天의 자세와 비슷한 것 같으나 彫刻과 鑄術의 稚拙로 樂器를 들었는지는 不明이며 鍾腹 乳廓의 間地 四個處에 配하였다. 撞座는 圓形蓮花文(中房에 蓮瓣表示)으로 유곽 바로 밑에 하나씩 四個를 配하여 飛天과 交互로 놓여 있다. 大體로 保存狀態는 良好하나 鍾頭와 鍾身의 接屬部가 造成後 깨어져서 後에 수리한 것 같으며 안팎에 떨어진 것이 그대로 붙어 있고 균열과 파손공이 數個處로 그대로 남아 있다.

以上 簡略히 紹介하였거니와 龍鈕部分과 鍾身의 各部位配置에서 各文樣의 되화 치출함이 있고 鍾身 肩部 周緣의 立華形이 없어지고 있으나 그 配置가 홀로러지지 아니하고 있는 點 등으로 보아 麗末十四世紀의 作品이 아닌가 생각한다. 總高三〇・〇cm 甬筒高八・九cm 龍高角一〇・〇cm 鍾身高二〇・〇cm 口徑二〇・三cm 두께一・三cm 肩幅一六・三cm

二、飯子

飯子亦 後期의 一般樣式을 지니고 있는 鉦鼓形으로 鼓面은 片面이며 그 裏面에는 短緣이 內付되고 口緣엔 二條의 圓帶가 둘러있다. 彫飾은 陽鑄로 鼓面(表)을 內外區로 나누어 그 中間에 같은 굵기의 同心三條線을 둘러 區分하였다. 外區의 周緣은 모서리가 되는 一條線을 除外하고 一條線을 들렸으며 이 兩帶線 사이에 主文樣인 退化된 唐草文을 들렸다. 內區는 하나의 蓮花文이나 重蓮瓣을 나타내고 그 中房의 蓮瓣을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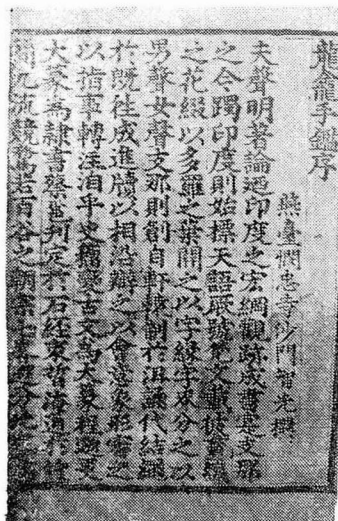
굵기의 同心三條帶線으로 싸고 있어서 全面을 三區分한 것 같이 보인다. 側面엔 鼓面으로 向한 周緣에 一條帶線이 있고 裏面으로 向한 쪽에 주조시에 생긴 듯한 단층이 나타나 있으며 飯子를 달기 위한 參個의 耳가 붙어 있다. 裏面의 모든 前面같이 모서리 아니고 둥구스름하여 外周로 一條帶線이 있다. 前者와 같이 文樣等의 退化稚拙함이 있고 側面의 귀가 하나 더 붙은 것이 있으며 太細線이 같은 굵기로 되고 側面의 中央線들이 없으나 後期一般樣式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梵鍾과 같은 年代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表面徑 三三・四cm 裏面口徑一三・三cm 側面幅 八・二cm

葆華閣 所藏 「龍龕手鑑」에 對하여

崔 完 秀

지난해(一九六六 A.D.) 四月부터 葆華閣에 收藏된 故 澗松 全鑑弼 先生의 蒐集 遺物 및 藏書의 整理作業을 進行하여 오는중에 藏書部分에서 單도 적지 않은 稀貴本과 珍本들을 가려 내었다. 여기에는 「龍龕手鑑」全帙八卷七冊도 그 中의 하나이니 이에 對한 一考로 斯界에 一資를 供하고자 한다.

中國의 南北朝時 代로부터 始作한 佛經의 漢譯作業은 唐代 前半期에 一段落을 짓게 되었다. 그런데 表音文字인 梵文을 表意文字인 漢文으로 翻譯하므로써 漢譯經이 正確하



게 理解되기에 많은 音韻上的 障礙를 받게 되었으니

「釋氏之教, 演于印度, 譯布支那, 轉梵從唐, 雖匪差於性相, 披教悟理, 而必正於名言, 名言不正, 則性相之義差, 性相之義差, 則修斷之路, 阻矣云云」^①이라고 하여 這問의 消息을 傳하고 있다. 따라서 漢譯經의 正確한 理解를 爲하여서는 豊富한 韻書가 要求되는 必然의인 結果를 가져왔다. 이러한 時代의 要求에 符應해서 많은 韻書가 나왔으나^② 梁 顧野王之 「玉篇」의 體裁를 模倣하여 새로운 體裁로 從來의 韻書를 綜合集大成하여 編纂한 것이 本「龍龜手鑑」이다.

本葆華閣所藏「龍龜手鑑」(以後 本閣本으로 略稱하겠음)은 日本 陽明文庫本이나 서울大學本과 같이 「嘉靖四十二年 高德山歸眞寺開板」의 刊記를 가진 所謂 歸眞板 中의 하나다.

全帙 八卷七册으로 卷六과 卷七을 合綴하여 一册을 만든 外는 各各一卷即 一册으로 되어 있다. 紙質은 比較的 얇고 白色(지금은 질어서 엷은 牛黃色을 띄우고 있다)인 竹葉紙이며 荷葉과 蓮華 및 菱形文이 가득 찬 茶褐色의 두꺼운 表紙를 가지고 있다. 冊의 크기는 橫七寸二分縱一尺一寸七分이며 匡郭은 橫六寸 縱八寸四分으로 若干의 出入은 있다. 板心은 黑口와 黑魚尾가 上下에 있고 마주 바라보는 上下 魚尾 사이에 卷數(龍龜卷 ○이라 함) 및 丈數가 들어 있고 黑口 下段에는 宋板의 模倣으로 陰刻 shang이 刻入되어 있으며 四周는 雙邊이고 有界 十行이나 各行은 四字을 收錄하는 것을 (序文은 十八字) 原則으로 하나 間或三字인 경우도 있으며 細注는 雙行이나 字數가 一定치 않다.

每卷의 卷首에는 「龍龜手鑑 第○卷」의 卷數 標記 아래 1cm 쯤되는 곳에 橫三·六cm



縱三·五cm의 陽刻 墨印 捺印되어 있다. (圖版) 그리고 이 墨印의 左半 一直線下에 該

當하는 欄內 第二行末에 엷은 鴨青色의 水注形 무늬가 역시 捺印되어 있는 것이 特色이다. (高三·八cm 幅二·二cm)



統和十五년에 燕臺潤忠寺沙門智光撰인 原序가 있을 뿐 後序나 跋은 全無하며 上述한 바와 같은 板心內의 陰刻 墨印外에 板의 下部 欄外에도 陽刻의 施主名이 刻出되었으며 卷二와 卷三 그리고 卷四의 卷末에는 本格的인 刊記가 있다.

다음에 卷末의 本格的인 刊記를 살펴보면 卷二의 終丈엔 마즈막 欄內에 「幹善道人釋熙○熙圓」이라 있고 卷三의 終丈인 第八十一丈의 裏面에 第一行부터

「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

聖列仁明大王王妃殿下壽萬歲

恭懿王大妃殿下壽萬歲

世子邸下壽千秋

監刊華嚴宗中德成佛寺住持法達

幹善道人釋熙

一卷成佛寺僧人等 開刊」

의 記가 있고 卷四의 終丈에 「大化主釋熙」의 記가 있으며 卷八의 終丈인 第八十七丈 裏面에는

「判禪宗事都大禪師兼奉恩寺住持

大功德主判教宗事都大教師兼奉先寺住持天則

化主 信仁

嘉靖四十二年 高德山歸眞寺開板」이란 實質上의 刊記가 있다.

이로써 本書가 嘉靖四十二年 即 明宗十八年(A, D 一五六三) 癸亥에 黃海道 瑞興郡 栗里面 高德山 歸眞寺^③에서 開板되었고 大化主는 釋熙를 비롯하여 信仁和 熙圓이며 成佛寺住持이자 華嚴宗의 中德位에 있는 法達가 監刊하였고 禪教 兩宗判事가 隨喜結緣하는 學敎的인 刊行事業이 었음을 알 수 있다.

本書는 部數總二百四十三部를 設하여 二萬六千四百三十餘字를 包容하고 있는데 部首의 配列은 四聲의 次例에 따랐으니 平聲이 九十七部로 卷一(四部) 卷二十九部) 卷三(七十四部)이 이에 屬하고 上聲은 六十部

로 卷四(七部) 卷五(五十三部)가 이에 屬하며 去聲은 二十六部로 卷六(二十六部)이 이것이며 八聲은 六十部로 卷七(十二部)과 卷八(四十八部)이 이에 屬한다. 各部內의 字順 配列도 亦是 四聲의 順에 따라고 字音은 反切로 表記하고 간단한 訓을 붙이기도 하였는데 處處에 今增의 記가 있어서 遼刊 原本에 對한 後代의 增修本임을 나타낸다. 文數 總計 五百七十七文으로 卷一이 七十二文(序文二文 目錄七文 包含) 卷二가 六十九文 卷三이 八十一文 卷四가 八十六文 卷五가 九十一文 卷六이 七十二文 卷七이 六十九文 卷八이 八十七文이다.

本閣本은 體裁에 있어서 天順年間 刊經都監 刊本이라는 龍谷本과 同一하여 卷六의 卷首에 「增廣龍龜手監 卷第六」이라 하여 他卷首에 없는 「增廣」의 二字를 加한 것을 비롯하여 卷六과 卷七을 合綴하여 一冊으로 한 것 및 欄外에 施主名을 刻하는 手法까지 同一하다. (板心の 陰刻記만은 龍谷本에 없다) 뿐만 아니라 板刻의 刻字 字體까지도 恰似한데 龍谷本의 字體가 本閣本보다는 筆勢가 強하여 毅然 壯快한 初創의 勢가 있는데 反하여 本閣本은 流暢하고 鈍厚하며 힘이 빠져서 左右로 퍼진 듯한 느낌을 준다.

따라서 本閣本은 世祖朝 刊經都監板의 覆刻本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歸眞寺 刊記를 가지고 있는 陽明文庫本은 그 刊記가 本閣本과 大體로 同一하지만 板心の 陰刻記는 若干 다르며 體裁도 相異點을 나타내어 本閣本과 龍谷本이 모두 卷六과 卷七을 合綴一冊했음에도 불구하고 此本은 卷五와 卷六을 合綴하여 一冊으로 하고 있으며 ④冊의 크기는 勿論(縱九寸九分 橫七寸四分) 匡郭의 크기까지 本閣本과 若干의 差異가 있고 (橫六寸七分 縱九寸三分) 板刻의 字體도 相異하여 龍谷本系統의 本閣本 字體와는 全히 別體라고 할 만큼 달라져서 細拙한 느낌을 풍긴다.

서울大學本은 本閣本과 全히 同一한 板本이다. 字體는 勿論 體裁와 크기에 하나 다르지 않은 完全한 同一板의 異印本인 바 此本은 零本으로 卷一 卷二 卷三 卷四 卷八의 五冊만 남아 있던 것을 近年에 歸眞寺에서 刊板을 찾아 내어 ⑤新刊 補卷하여 現在는 八卷 八冊으로 되었다.

는 바 補卷된 新修本이야 例外지만 零本 五冊의 印成年代와 本閣本의 印成年代의 先後는 判할 必要가 있을 것 같다.

兩本에 있어서 板의 磨滅度를 살피는데 本文보다는 細字이며 傷하기 쉬운 欄外 刊記를 가지고 살피는 것이 보다 捷徑이겠으므로 이것에 依據하여 살펴 보면 卷一의 二十六文 「施主性淡」에서 서울大學本은 「施主」의 二字가 缺하였고 卷三의 六十四文 「恕」이 完全 缺하였으며 (本閣本에서도 完全한 字體는 아니었다) 卷七에서는 가장 尤甚하여 三丈의 「洪伯憲」에서 「洪」이 缺하고 二十五丈의 「施主洪伯憲本南陽居遂安」에서 亦是 「洪」이 缺하고 三十一丈의 「平安道咸從前旅師洪恕兩主」에서 「前旅師洪恕兩主」의 七字가 缺하였고 五十五丈의 「遂安李軍枝靈駕」에서 「軍字」와 「駕」字가 缺하였다. 그런데 이에 比하여 本閣本은 一字一劃의 缺字가 없으니 本閣本이 서울大學本보다 舊印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울大學本은 卷八의 刊記에서 「判禪宗事都大禪師兼奉恩寺住持 普雨」 및 「嘉靖四十二年 高德山歸眞寺開板 大化主 釋熙」라 하여 「普雨」와 「大化主 釋熙」를 混하지 않고 印刷하고 있으나 本閣本은 이를 混하여 印刷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化主信仁」조차 混하려던 痕跡이 남아 있다. 따라서 本의 開板이 普雨의 被誅되기 바로 滿一年前 ⑥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本閣本은 開板과 그리 머지않은 時期(被誅前一年間을 除外할)에 印成된 것이라 하여야 할 것이니 그 下限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壬亂 以前이어야 할 것이다. 그 서울大學本이 磨滅이 尤甚한 위치에 「普雨」 등의 被罪僧名을 混하지 않은 것은 儒臣 등의 普雨 등에 關한 感情이 弛緩된 훨씬 後代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陽明本은 本閣本의 原板인 歸眞寺板을 模刻한 別個의 板으로 (近來 歸眞寺發見板이 本閣本과 完全 合致된은 前學한 바이다) 當然히 本閣本보다는 後代의 刊本이어야 한다. 따라서 現在까지 알려진 歸眞寺板本의 「龍龜手鑑」으로는 最古의 本일 뿐더러 國內에 알려진 「龍龜手鑑」으로도 最古 最完의 本이 곧 本葆華閣所藏의 「龍龜手鑑」이라 하겠다. 本書가 如何한 經路를 거쳐서 潤松先生의 所藏이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每冊 卷末 欄外에 「山水亭藏」이라고 墨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본디 「山水亭」主人의 손을 거쳐 온 것

임을 알 수 있다.

註

① 智光撰의 龍龜手鏡 原序

② (唐) 一、釋玄應의 「大唐衆經音義」三帙(現存「一切經音義」二十五卷) 二、處士 郭遵의 「新定一切經類音」八卷

三、釋慧琳의 「新譯華嚴經音義」二卷

四、釋慧琳의 「新修一切藏經音義」一百卷(不傳)

(後周) 五、釋行瑠의 「大藏經音疏」五百卷(零卷遺傳)

六、江西兼大德의 「經音」(不傳)

七、西川厚大德의 「經音」(不傳)

(石晉) 八、可洪의 「新集藏經音義隨函錄」三十卷(現存)

(契丹) 九、釋希麟의 「續一切經音義」十卷(現存)

③ 「東國輿地勝覽」卷四十二 黃海道 瑞興都護府 山川條에 「高德山左

府西三十里」라 하고 佛宇條에 「星宿寺在高德山」이라 하고 「梵宇

放」에 「寺刹 星宿寺在高德山一名歸眞寺」라 하고 李能和의 「朝鮮

佛教通史」上編 P. 166 黃海道 黃州郡 正方山 成佛寺 山外末寺

條에 「歸眞寺 續命寺 已上二寺在瑞興郡」이라 함

④ 「高麗續藏影造放」 P. 157 參照

⑤ 「」 P. 153

⑥ 普雨는 明宗二十年 文正王後 薨去後 大逆罪로 몰려 濟州島에서 杖殺되었다.

〈附記〉

普雨의 著書인 「懶庵雜著」의 跋文에 「萬曆元年 四月」의 紀年이 明記되어 있는 것(李朝佛敎 P. 322)으로 보아 別號 萬曆元年(宣祖六年 A. D. 一五七三)에는 普雨의 文集을 發刊할 수 있었던 듯 하니 既刊의 刊板에서 普雨의 이름을 避할 理 없을 것이다. 따라서 本書의 印刷時期는 上限을 明宗二〇年(A. D. 一五六五)으로 하고 宣祖六年을 下限으로 하는 七. 八年間으로 壓縮되지 않을가 생각한다.

考古美術 一〇

◎ 文化財委 第一分委(第七次)

一九六七. 七. 四 午後二時 文財局에서 開催 出席委員 李弘植 金啓基 趙明基 裴吉基 崔淳雨 鄭寅國 秦弘燮 諸委員 金周泰 專門委員 河局長 黃係長 姜學藝 士 討議事項은 다음과 같다.

一、法住寺境內建築物調査報告

寺庭內便所는 撤去하고 水晶橋橋脚兩側에 舊觀대로 石築하고 난간은

石蓮池 난간樣式으로 할 것

二、寶泉寺址三層石塔現地調査報告

三、慶州皇南里三號古墳發掘 否決

四、武烈王陵床石 및 碑石設置 否決

五、公山城內病院設置

指定區域內 現狀變更과 敷地로 使用함은 不可함 區域外設置는 無妨

六、首露王妃陵 담장 및 鐵條網設置

鐵條網은 얇게하고 담자나무를 심을 것, 鐵門은 紅箭門形式으로 할 것

七、寶相寺境內發見 銅鐘處理

東國大學校 博物館에 保管할 것

八、幸州山城內 採石使用許可申請 否決

九、月勤門垣牆新築 및 丹青及 永春門丹青 可

一〇、堤川長樂里石塔修理

鄭寅國委員을 早速히 派遣 方案을 決定할 것. 現在 모래가마니로 補強

措置를 取하고 있음

一一、鵝谷寺三層石塔 再修理토록 할 것

一二、檀國大의 泗川貝塚發掘 可

一三、慶熙大의 岩寺里遺蹟地任意發掘件 經緯를 照會中이라고 報告

以外에 現物이 提出된 柳成龍 關係遺物의 調査가 있었음

◎ 國博에서 東萊貝塚發掘